

Healing Environment of the East Asia

동양의 치유 공간

Yang, Naewon 양내원(한양대학교), Son, Jihye 손지혜(한양대학교 대학원)

1. 동양인은 기로 세상을 이해한다.

동양에는 오감 외에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개념이 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 즉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외에 동양인은 기로도 세상을 이해한다. 동양의 기 개념을 설명하는 사례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른다. 환경이 갖는 독특한 기운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김승호는 사는 지역에 따라 환경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그 운명이 바뀐다고 주장한다. (김승호, 사는 곳이 운명이다)



[그림 1]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H₂O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은 어느 대학 캠퍼스 내 호수의 물가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왜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에 삼삼오오 앉아 있을까? 물에는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 물을 과학적으로 H₂O라고 정의하는 것이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동양적 사고방식은 물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흐름의 관계에 주목한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로서 동양에서는 물을 이해한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물과 사람을 따로 따로 나누어 개개의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양의 건축공간은 대지 주변의 다양한 존재들과의 관계 맺음을 중요시 하고 주변 존재들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지는 관계의 장, 흐름의 장을 형성한다.

2. 동양에서 보는 질병의 원인

동양과 서양은 질병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인간 내부, 인간과 환경 사이의 흐름 관계에서 찾는다.

고대 중국에서는 모든 존재와 물리적 현상을 음양으로 정의하였고, 질병은 음과 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며 질병의 치료는 음양의 조화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의 순환이 막히거나 해를 받으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로이 포터,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홍윤철은 건강이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 몸이 갈등과 충돌 없이 적응 할 때 확보되는 것이며 거꾸로 질병은 생물체가 주어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갈등관계가 형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홍윤철, 질병의 탄생)

동의보감에 따르면 기의 순환이 막히거나 해를 받으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서양의 인체 해부도가 형태와 조직을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와 같이 동양에서는 기운의 흐름과 분포를 더 중요시하여 표현한다. 질병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부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치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고미숙, 동의보감)

곽내혁은 건강을 위해서는 인체 내에서 기가 막힘없이 잘 흘러야 하며 기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체는 우주와의 기 순환이 원활하여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병과 건강은 고정된 실체의 개념이 아니라 그 근원에서는 인체 내부와 인체와 우주 사이의 기의 흐름이라는 맥락 속에 나타나는 유동적인 어떤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곽내혁, 내 안의 우주에 이르는 길)

즉,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사이에 균형적인 관계가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 동양에서 해석하는 질병의 원인이다. 이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 동양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이것은 기의 불균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 기의 불균형은 인간 내부, 인간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생긴다고 생각한다.
- 풍수지리란 인간이 환경(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을 제안하는 학문이다.
- 서양은 오감(감각자극)으로 세상을 경험하지만 동양은 기의 흐름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인체와 환경 사이의 원활하고 조화로운 흐름은 건강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3. 흐름의 건축, 장(場)의 건축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양의 건축공간은 주변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흐름의 장을 추구한다. 건축공간은 대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존재들 하늘, 바람, 물, 달, 나무, 구름 등과의 관계를 통해

서 종합적인 장으로 존재한다. 동양의 건축은 주변과의 능동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인간의 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의 접점을 찾아간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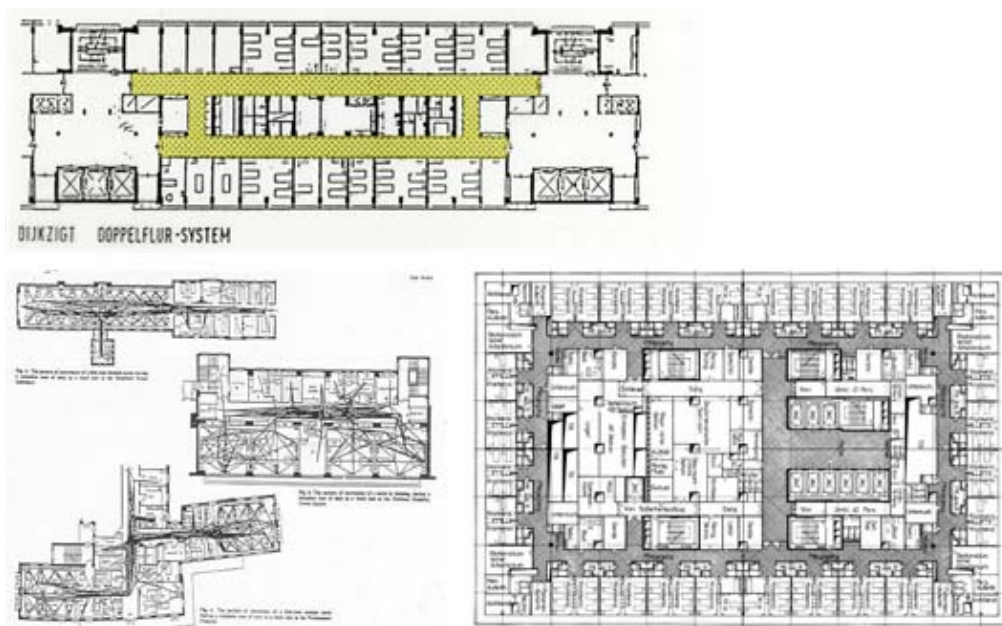


[그림 2] 동양의 건축공간은 흐름의 장 또는 관계의 장으로 존재한다.

동의보감은 몸을 생명과 우주의 교차점으로 본다. 즉 생명의 원천은 우주이며 건강이란 근원적으로 몸과 외부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미숙은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병임으로 몸에 대한 탐구는 당연히 이웃과 사회, 혹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탐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고미숙, 동의보감)

조인철은 풍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 기의 흐름에 의해 땅(환경)의 음과 양이 정해지며, 기가 잘 통하고 양기가 흐르는 땅은 생기(生氣)가 흐르는 땅으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주장한다. (조인철, 양생풍수의 비밀) 결국 풍수지리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 학문이며, 동양의 건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환경과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양의 건축 공간은 흐름의 장, 관계의 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런 주변과의 관계와 흐름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 근대의 병원이 아닐까?



[그림 3] 근대적 개념의 병원건축 평면 사례

[그림 3]은 근대 병원의 평면 사례이다. 병원 복도는 변화 또는 변수를 양산할 수 있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완전히 외면하고 기능(작동)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통 의학에서는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닫혀있는 상태를 자폐증상이라고 한다. 주변과 고립되어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리고 기능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형태는 동양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저해 요인이 된다. 근래에 지어진 대부분의 병원 복도는 자연과의 흐름이 단절된 자폐적인 공간이다.

4. 맺음말

최근 병원건축에 치유환경의 열풍이 불고 있다. 신경면역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고와 공포가 면역체계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생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면역체계의 기능장애는 비정상적 세포성장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뿐 만 아니라 외부환경 요인의 유해 작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지 못한다. 오랜 시간에 걸친 생리적 스트레스는 건강한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질병을 일으킨다. 즉 부정적인 사고나 고통 혹은 공포의 감정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면역체계에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결국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바버라 개님, 미술치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양에서는 의료시설에 감각자극디자인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동양에서는 세상을 오감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로 이해하기 때문에 동양의 치유환경은 근본적으로 개념을 달리 한다.



[그림 4] 환경과의 흐름이 단절된 자폐적 공간과 주변 환경과 흐름이 원활한 건축 공간 사례

질병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은 치유를 전제로 한다. 최근 병원의 치유환경을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는 한계를 벗어나 동양적인 접근방식이 오히려 폭넓은 사고의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병원 건축은 그동안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무시한 채로 기능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인간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그림 4). 시미즈 히로시는 일찍이 ‘사람과의 관계를 잊고 표면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달린 근대건축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부여할 수 없었고 일찌감치 슬럼화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근대 기술에서 잊혀온 것은 분리된 물(物)과 사람 사이에 있는 생명적인 연결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지적한다. (시미즈 히로시, 생명과 장소) 자폐적인 병원건축이 우주와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동양적인 해석으로 거듭나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